

사랑하는 창신성결교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올해에도 이렇게 한가위를 맞아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아
성도 여러분의 가정 가정마다
성령과 함께 진행하여 열매가 맺히기를
기쁨과 행복이 차고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창신성결교회 담임목사 이종복 드림

**명절에 드리는 예배는
온 집안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차례(茶禮)의 의미와는 다르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전통적으로 명절에 드려지는 제사인 차례를 대신하는 의미의 예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과 금년 한 해 동안도 은혜 중에 인도해주심과 앞으로도 항상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차려놓고 초나 향을 피운다거나, 절을 하는 행위 등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 순서의 한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먼저 세상을 떠나신 조부모나 부모들의 신앙을 함께 연결하고 추모하고 가족 각자의 다짐을 함께 나누는 것은 신앙적으로도 뜻 깊은 일이기도 합니다.



추 석 가 정 예 배

2013년 9월 8일(음 8월 15일)



예 수 교 창 신 교 회
대한성결교회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138-32 www.changshin.org
Tel. 765-6850~3 / Fax. 765-6769

추석 가정 예배

※ 가능하면 가장이나 신앙의 연장자가 예배를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묵상 기도함으로 추석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상기도 시 62:1-2	인도자
(62:1)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램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62:2)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찬송 29장	다같이
기도	가족중에서
성경 신 8:1~10	인도자
	성경봉독은 다른 분이 하셔도 좋습니다.		
찬송 563장 (통 411)	다같이
	아이들의 특별찬송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말씀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인도자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광야를 걷게 하시고, 때로는 적절한 고난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기를 결심하도록 훈련시키십니다. 그 훈련을 잘 마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과 번성을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약속이고, 가르침입니다.

1. 광야 길을 걷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닦아진 길이나 휴식처가 많은 길은 선호합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은 비교적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늘 평평하게 잘 닦여진 길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언덕이나 낮은 계곡, 휴식처 없는 광야 길로 인도하시곤 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문명과 도구, 노력을 통해 무엇인가 성취하거나 취득할 수 있다는 인간의 자만을 꺾으셔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 숨겨진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반대로 풍족한 환경을 대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위기나 고난은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된 훈련입니다.

2. 배고픈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풍족한 식량이 아니라, 만나라고 하는 일용할 만큼의 식량으로만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배부르게 하는 떡과 같은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음식을 얻도록 하는 모든 자연 만물을 움직이는 창조주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3.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프라’라는 말은 생산이나 생활의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산업 기반과 생활 기반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7~9절은 과거 농경사회의 인프라가 잘 구축된 땅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와의 명령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땀 흘린 자의 수고가 최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올해도 풍성한 한가위가 되셨나요? 우리가 좀 더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인프라를 조성해주시고 만들어주셔서, 우리가 헛수고 하지 않고, 우리가 수고한 대로 거두고 먹을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가문이 됩시다.

나눔 다같이

※ 본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느낀점을 가족끼리 함께 나누어봅시다.
아래의 질문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나눔이 끝나시면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시면 더 좋습니다.

- 1) 광야 길을 걷는 것처럼 힘든 때가 있었습니까?
- 2) 하나님이 공급해주신 만나처럼 일용할 양식은 무엇이었습니까?
- 3) 어떻게 하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찬송 620장	다같이
축복기도	다같이
	가장이나 신앙의 연장자가 참석한 자녀,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기도문	다같이